##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

리 명 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각 도들에 20여개에 달하는 전문형과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할데 대하여 선포하였다.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들의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다.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와 온갖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을 적극적으로 다그쳐나가는데서 나 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가 우리 나라의 자원과 우리의 기 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에 철저히 의거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은 각 도들에 마련되여있는 물질기술적토대와 온갖 생산잠재력에 튼튼히 의거하여 발전해나갈 때 더욱 높이 발휘되게 된다.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경제적잠재력을 적극 리용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균형을 원만히 보장하고 도들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각 도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면 각 도들의 생산자원과 기술, 창조적로 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리용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 경제지대로서 그 개발사업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는 물론 다른 나라 투자가들도 우 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른 나라 투자가들은 개발지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 물질기술적조건, 생산잠재력 등을 충분히 리용하여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특혜적인 조건에 따라 각 도들의 특성에 맞는여러가지 형태의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지역개발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선진적인 기술과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해결할수 있으며 특히 각도 경제개발구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리용하여 경제적리윤을 얻으려는 외국투자가들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이 지역과 그 주변의 하부구조시설들과 산업부문들을 빨리 현대화해나갈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안에 창설된 기업들을 통하여 해당 지역뿐아니라 린접한 지역들에서 경제발전을 빨리 다그칠수 있다.

이것은 각 도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면 그만큼 국가의 부담을 덜면서 도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수준을 높여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하다는것 을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오늘날 거의 120개 나라들에서 3 000여개이상의 경제개발구와 같은 특수경제지대들을 창설운영하고있는데 이 나라들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들에서의 세금감면과 기업특혜 등을 리용하여 해외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보다 앞서고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들을 받아들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장성을 이룩하고있다.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의 정책적요구이다. 대외 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경제봉쇄책동을 철저히 짓부 시고 경제강국건설과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각 도 경제개발구의 적극적인 개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경제개발구가 대외경제적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있으며 따라서 대외경제적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는 원칙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될것을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우선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지역들에 위치하고있다.

실례로 흥남공업개발구는 흥남항과 가깝고 우리 나라의 오랜 화학공업 및 대규모기계제작공업지역으로서의 특성으로 하여 보세가공, 화학제품생산, 촉매생산, 기계설비제작, 건재 및 약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공업개발구로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수 있으며 온성섬관광개발구는 온성읍과 량수천자사이의 두만강에 있는 섬으로서 관광봉사에 매우유리한 지역이다. 그리고 와우도수출가공구는 주변나라와 동남아시아로 직접 통하는 남포항을 끼고있고 평양과 남포시중심부와 가깝게 위치한 지역으로서 국내외수상운수와 대외적인 인원, 물자, 자금류출입에 매우 유리하다.

대부분의 도 경제개발구들은 바다를 끼고있어 무역항을 통한 대외경제적련계에서 유리하며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의 경제개발구들은 국경지역과 접하고있어 도로와 철도를 통한 경제적교류와 협력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또한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유리한 자연경제적조건을 가지고있다.

각 도들이 가지고있는 자원과 생산력토대, 자연지리적조건과 환경 등에서의 차이는 각 도들의 실정에 맞게 경제개발구들을 특색있게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대체로 자강도와 함경남도에는 공업부문 기업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여있으며 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도 일정하게 꾸려져있다. 함경북도는 칠보산을 비롯한 유명한 관광자원을 가지고있는 연안지역이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린접하고있다. 그리고 평안북도는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와의 경제적교류의 중요한 지역이며 남포시는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바다를 통한 수출입수송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남포항을 가지고있어 수출가공구로서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각 도 경제개발구들은 지역적특성을 고려하여 북청농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

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위원공업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등으로 창설되였다.

이러한 경제개발구들은 우리 나라에서 각이한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투자를 실현가능 하게 하며 투자지역과 투자규모를 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선정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 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는것이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각 도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갈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풍부한 인적, 물적잠재력을 가지고있으며 20여년간의 라선경제무역지대창설운영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를 개발하는 과정에 얻은 경험들이 있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평안북도에는 압록강경제개발구와 청수관광개발구, 자강도에는 만포경제개발구와 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에는 신평관광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를, 강원도에는 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에는 흥남공업개발구와 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에는 청진경제개발구와 어랑농업개발구 그리고 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에는 혜산경제개발구, 평양시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황해남도에는 강령국제록색시범구, 남포시에는 와우도수출가공구와 진도수출가공구, 평안남도에는 청남공업개발구와 숙천농업개발구 등을 내왔다. 그리고 현재 국가적으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경제개발구부동산규정, 경제개발구개발규정, 경제개발구관리기관운영규정, 경제개발구창설규정, 경제개발구로동규정, 경제개발구기업창설운영규정 등 경제개발구들의 법률적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활발히벌어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은 락관적이며 그 전망이 대단하다.

모든 일군들은 각 도들의 구체적인 실정과 능력에 맞게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운영방향을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 동원하며 필요한 자금과 선진기술들을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내온 경제개발구들이 자기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하여야 할것이다.